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8월 23일(일) 제1602호



2026 차세대 여름 캠프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으로!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 여름사역 종료 여름캠프 1만 명, 국내외 아웃리치 1,090명 참가

차세대사역본부가 2026년 여름사역을 종료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걸었다. 차세대사역본부 여름사역은 7월과 8월 이어졌다. 여름 캠프, 아웃리치, QT하고 수박먹자 등 그 내용도 풍성했다. 차세대 여름 캠프에는 국내 13개 온누리교회 캠퍼스 차세대 소속 학생 1만여 명이, 아웃리치에는 국내 27개 팀 566명, 해외 32개 팀 524명이 참가했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유아부·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초등부·소년부) 여름 캠프는 7월 4일(토)부터 8월 9일(일)까지 '여

호수아, 약속의 땅으로'를 주제로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과 온누리청소년센터, 이천 자연나라, 포천염광수련원, 피노키오청소년수련원, 너구리 문화마을 등지에서 열렸다. 성경 퀴즈, 적용 놀이, 체력 활동 등을 했다.

과워웨이브 여름 캠프는 '돌파'를 주제로 7월 17일(금)부터 8월 4일(화)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양평숲속자연나라, 원주힐링파크 등지에서 열렸다. '두려움을 돌파하라', '불가능을 돌파하라', '망설임을 돌파하라'를 소주제로 찬양과 설교, 주

제 강의, 기도회 등을 했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는 지난 8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진행된 양재 초등2부 아웃리치가 대미를 장식했다. 올해 차세대 아웃리치 국내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 경기도 부천, 충청북도 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등지에서 노방 전도, 성경학교, 어르신 섬김 등을 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몽골 등지에서 어린이캠프, 노방 전도, 환경 미화 등을 했다.

한편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수박먹자'는 지난 7월 20일(월)부터 8월 15일(토)까지 진행됐다. QT 교재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와 CGN 풍당 콘텐츠를 활용해서 개인 QT 및 가족 QT

를 했다. 차세대사역본부는 23일(일) 'QT하고 수박먹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박 간식을 배부한다.

이한비 학생(도곡 과워웨이브 고등부)은 "수련회의 은혜와 감동을 넘어 아웃리치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지 기대하며 참여했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아이들의 미래와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8월 25일(화)부터 9월 12일(토)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일정표 6면).

2026년 하반기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걷는 뜻깊은 행사를 한다. 9월 5일(토)~6일(일) '사르밧 프로젝트', 25일(금)~27일(일) '온누리M미션 추석 연합수련회 하비스트', 10월 12일(월)~14일(수) 'OMC(온누리사역축제)', 21일(수)~22일(목) '러브소나타 이와테', 11월 21일(토)~22일(일) '엔젤트리(후원참여)', 12월 19일(토)~20일(일) '성탄주일예배' 등이 이어진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및 간증 모집

8월 31일까지 영상 60~90초, 간증 A4용지 1장

미디어사역본부에서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월)까지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onnuriacts29) 태그,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응모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A4용지 1장 분량의 간증과 함께 가로형 사역 사진, 작성자 최근 정면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제출

하면 <온누리신문>에 8~9월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2026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이어지는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외 346팀 7,298명이 참가했다. 성인 공동체 국내 35팀 1,630명, 해외 55팀 1,126명, 대학청년부 국내 138팀 2,493명, 해외 59팀 959명, 차세대 국내 27팀 566명, 해외 32팀 524명이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8월 21일 기준).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8월 31일과 9월 1일
양재, 9월 1일...교회 식당 운영 안 해

성찬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8월 31일(월)과 9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9월 1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제조한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봉사 신청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임직 대상 권사, 남녀 안수집사 후보들이 대상이다. 봉사 시간 8시간을 인정해 준다. / 홍하영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자유’라는 단어는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오면서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유’라는 단어는 복음의 전파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자유는 얻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유는 총칼에 빼앗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국민 스스로 자유를 내어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1900년,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독일의 국민이 투표와 환호로 얻은 자유를 나치 독재자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목격한 후,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씁니다. 근대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얻은 국민이 해방감과 함께 고독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묶여 있을 때는, 통제받을 때는 몰랐던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내면의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짐으로 여기고, 벗어나려고 다시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관찰한 도피의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복종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짐을 강한 지도자에게 넘겨버리고, 그 힘에 기대어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파괴입니다.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상을 미워하고, 부수고, 파괴하는 데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동조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따르며 군중 속에 숨는 것입니다. 1930년대 독일 국민은 이 세 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독재자에게 열광하고, 어느 한 민족을 증오하며, 다수의 의견이라고 밀어붙이는 사회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빼앗기기 전에 먼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와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를 가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의지하

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를 버리고,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선포한 첫날 인간은 숨었고,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자유의 무게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간이 우상에게 도피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과 같은 시대에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다른 자리에서 길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Emil Brunner)입니다. 에릭 프롬이 자유를 내어주며 도망치는 인간의 마음을 지적했다면, 에밀 브루너는 자유를 삼키는 국가를 지적합니다. 국가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상이 되고, 국민은 그 우상의 종이 됩니다. 국가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불의를 억제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하나님께 받은 기관입니다. 국가는 구원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정의입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야 하고, 다수의 합의나 시대 유행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자유는 정의가 지켜야 할 으뜸가는 몫입니다. 자유는 국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에게 주신 몫입니다. 각 사람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질서는 아무리 정의의 이름을 붙여도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은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국가에게 자유를 내어주고, 국가는 자유의 책임을 공의로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가면서 자신을 구원자처럼 여길 때 전체주의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참 성벽은 군대나 헌법 전에, 국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국민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정의이고,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정의만으로는 국가가 움직일 수 없고, 자유를 누리질 못합니다. 결국,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정의를 이루고, 참된 자유를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와 무거운 세금에 눌려 백성들이 정치적 자유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18~19절)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는 자유를 가져다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낭

독에는 그 회당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사야> 58장 6절을 추가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풀려난 백성들이 정작 자신들 곁에 눌러 있는 자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8장과 61장을 연결하시며 “해방 받은 백성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얻고도 자유를 나누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이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1장에 본래 있으나 예수님이 읽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61장 2절에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후반부를 읽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복의 날, 곧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속해 있기에 읽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여신 시대는 원수 갚는 날이 아니라 은혜의 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21절).

정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자유를 우리에게 진정 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 정의를 이룰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죄 용서’는 자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유는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왜 자유로부터 도피합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죄 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된 자유와 연결됩니다. 복음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날 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될 때 우상이 필요 없게 됩니다. 우상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 5:1).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갈 5:13).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이 자유를 얻게 된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서로의 자유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분이 십자가로 값 주고 사신 이웃의 자유를 함께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자유, 자기의 몫을 내어놓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회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참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로 진정 자유케 된 이들, 죄 사함을 받은 이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전체주의는 교회를 길들여했고, 예배하는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섬기는 교회란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어떤 권력과 이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요, 국가, 이념, 권력, 다수의 여론,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유를 섬기는 교회는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사람을 키웁니다. 복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사람, 어떤 지도자도 우상으로 삼지 않을 사람을 키웁니다. 다수에 숨지 않고 진리를 따를 사람을 키웁니다. 자유를 섬기는 교회는 억눌린 이웃을 자유케 하는 일을 섬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억눌린 이웃, 이주민들, 탈북민들, 독거인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고통받는 이들, 그들을 돌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빼앗기기 전에 먼저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 예배하며, 자유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낙태약 역전 치료법이란 무엇일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낙태약의 효과를 되돌리는 치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여성에게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흔히 ‘낙태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종류의 약물을 차례로 복용해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물 낙태 방식이다. 약물 낙태 과정에서 처음 복용하는 약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다. 그러나 첫 번째 낙태약을 복용한 이후 태아의 생명을 끝내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래서 조지 델가도 박사와 매슈 해리슨 박사가 낙태약의 효과를 되돌리는 치료법인 ‘낙태약 역전 치료법’을 개발했다. 제때 치료를 받으면 태어나기 전 아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낙태약 역전 치료가 효과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직하지 않다.

첫째, 미페프리스톤은 태어나기 전 아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지만, 그 효과를 되돌릴 수 있다. 약물 낙태에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두 가지 약이 사용된다. 미페프리스톤은 아기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한다. 프로게스테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기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된다.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하루에서 이틀 뒤 산모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다. 이 약은 자궁 수축을 일으켜

죽은 아기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킨다. 그러나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기 전이라면, 한 물질의 양을 늘려 다른 물질의 차단 작용을 이겨내는 ‘경쟁적 억제’의 가역성이라는 잘 알려진 화학적 원리를 이용해 미페프리스톤의 작용을 되돌릴 수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일종의 ‘억제제’다. 즉, 프로게스테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산모에게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뒤 72시간 이내에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 체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서 미페프리스톤의 차단 작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 아기에게 생존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다시 공급될 수 있다. 그 결과 아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둘째,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수십 년 동안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반복적으로 유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초기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흔히 사용된다. 델가도 박사의 2018년 연구에서는 약물 낙태를 중단하기 위해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받은 여성들의 경우 조산과 선천성 기형 발생률이 일반 인구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약 역전 치료를 통해 임신이 유지된 아기들의 조산율은 2.7%로, 일반 인구의 10%보다 낮았다. 이 아기들의 선천성 기형 발생률 역시 2.7%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수십 년 동안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여성들

에게서는 임신 결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셋째, 낙태약 역전 치료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2019년 낙태 시술 의사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미페프리스톤 제조업체의 유료 자문위원인 마첵 크라이닌 박사는 낙태약 역전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임신을 중단하기 원하는 여성 12명을 모집했다. 모든 여성에게 먼저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했다. 그런 다음 6명에게는 프로게스테론을, 나머지 6명에게는 위약을 투여했다. 이들 중 누구에게도 약물 낙태 과정에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미소프로스톨은 투여하지 않았다. 두 명의 여성이 연구 도중 빠지면서 최종 분석에서는 각 집단에 5명씩 남았다. 여성 세 명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하면서 연구는 초기에 중단되었다. 이 사실은 낙태약의 효과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위험하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양상은 다르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두 여성은 미페프리스톤과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심한 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그중 한 명은 수혈까지 받아야 했다. 심한 출혈을 경험한 세 번째 여성은 미페프리스톤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투여받은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물 낙태가

완료된 상태였고, 출혈은 별도의 치료 없이 저절로 멈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드러난 안전성 문제는 프로게스테론 치료가 아니라 미페프리스톤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넷째, 오늘날 4,0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낙태약 역전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켰다. ‘낙태약 역전 네트워크’에 따르면, 낙태약 역전 치료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기들의 생명을 구했다. 낙태약 역전 치료를 이용한 4,0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사례는 낙태약 복용을 후회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때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후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낙태약 역전 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평생의 후회와 평생 간직할 추억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낙태약의 효과를 되돌리는 치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지만, 그 효과는 되돌릴 수 있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수십 년 동안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

“낙태약 역전 치료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오늘날 4,0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낙태약 역전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켰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고난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졌다

: 기독교 세계관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뀐다



손수진 성도
(한강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정에 씁쓸함이 이어지는 어려움을 지나고 있다. 대상포진은 한동안 내 몸을 무너뜨렸고, 이후 찾아온 이석증은 일상의 균형마저 흔들어 놓았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 전체가 통제력을 잃어가는 경험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살아가야 했다.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업은 기대만큼 안정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제1형 당뇨병을 앓는 딸이다. 매일 혈당을 확인하고, 저혈당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부모가 대신 아파 줄 수 없는 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도 적지 않았다. 세상은 이런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한다. ‘운이 없다.’, ‘노력하면 극복된다.’, ‘긍정적

으로 생각하라.’, ‘결국 각자도생이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말도 있다. 그러나 삶을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문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관이 드러난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다.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기독교 세계관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관계의 아픔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상한 예외로 여기지 않는다. 동시에 그것을 운명이나 우연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하나님의 확정기’라고 표현했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속에서는 더 깊이 듣게 된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나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내가 어느 정도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병은 내 한계를 인정하게 했고, 경제적 어려움은 내가 의지하던 안전장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딸의 당뇨는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우게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먼저 바꾸고 계셨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고,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으며 감옥에 갇혔다.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이 고백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창 50:20).

사건은 같았다. 다만 해석이 달랐다. 형들은 자신들의 악한 선택만 보았지만, 요셉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이러한 해석의 전환이다. 나 역시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여전히 몸의 불편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 책을 읽고, 맡겨진 일을 계속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우리의 소망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둘 때 병이 모두 낫지 않아도, 경제가 당장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돌이켜 보면 내 삶에서 사라진 것은 고난이 아니었다. 바뀐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를 묻는다.

고난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질 때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 삶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진 세상 한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이것이 내가 붙드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NGO 더멋진세상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재난에 응답하는 사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사람을 준비하시고, 관계를 이어 놓으시며, 사랑이 흘러갈 길을 마련해 두신다. 이번 NGO 더멋진세상 베네수엘라 긴급구호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국민의 삶이 크게 위축된 나라다. 재난까지 겹치면 어린이와 노약자, 빈곤층이 가장 먼저 고통받는다.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현지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협력과 안전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라과이라(La Guaira) 지진 발생 이후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난제가 많았다. 피해 확인부터 물품 확보, 구호비 집행, 운송과 전달까지 쉬운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기도했더니 막혀 있던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NGO 더멋진세상 LA지부장인 LA온누리교회 이정엽 담임목사와의 연결이었다. 그를 통해 온두라스 선교사를, 다시 그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오래 사역해 온 UBF 소속 백석희 선교사와 연결됐다. 하나님이 중남미 곳곳에 미리 세워 두신 교회와 선교사, 동역자들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로 연결되었다. 백석희 선교사는 차량과 운전을 맡은 현지인 목회자, 현지어에 능통한 자녀까지 연결해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서 구호 역량을 갖추게 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 덕분에 구호 물품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가장 큰 과제였던 금융제재 속 결제 문제도 신뢰할 수 있는 현지 기업과 유통망의 협력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해결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뢰 관계가 결정적인 순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소속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 부부도 함께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잇는 다리 역

할을 했다. NGO 더멋진세상 전문위원들은 물품 포장과 배분, 안전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현지 협력업체 WTL E&C와 LG전자 지사 및 유통기업들의 협력도 큰 힘이 됐다. 기업은 물류를, 교회와 선교사는 현장성을, NGO는 전문성을, 자원봉사자는 손과 발을 내어놓았다. 각자 가진 것을 내어놓자 비로소 하나의 ‘완전체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번 사역은 서로 다른 소속의 교회와 선교사, NGO와 기업,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국

경을 넘어 협력한 ‘융합선교’이자, 서로의 역할을 살아나게 하고 더 큰 협력을 이끌어낸 ‘축매선교’이며, 서울 본부와 LA, 멕시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현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연결되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 ‘하이브리드 선교’ 그 자체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해 두신 신뢰의 관계 덕분이었다.

이번 긴급구호에서 각자의 역할은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로 엮으시니까 절망에 빠진 이웃을 살리는 거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베네수엘라로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다. 우리는 그 발걸음을 뒤따라 갔을 뿐이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다.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몸은 온전하게 세워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과 재능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고, 선교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여정이다.



강찬욱 장로
(이촌공동체,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 전문위원)

브릿지33+공동체
일본

처음 이와테현 아웃리치 일정을 보고 학기 중이라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장기재직휴가’가 갑자기 떠올라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러던 중에 이와테현이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6살 때 한국으로 오셨다. 4살 때 일본에서 어머니를 의료사고로 여의셨기에 아버지에게 일본 땅은 아픔 그 자체였다.

이유는 잘 몰랐지만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았다.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한 어느 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아버지께 “하나님이 왜 나를 아버지의 고향 이와테에 보내시는 것 같아?”라고 여쭈었다. 별말씀 없던 아버지가 다음 날 “나는 네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라고 짧게 답하셨는데, 오랜 아픔이 묻어났다.

6살까지가 인생에서 무척 중요하다는데, 아버지의 그 시기는 아픔이 깊이 새겨진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여기서 시작된 건 아닐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 나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테현 아웃리치에서는 10월 러브소나타를 위한 땅밟기 기도와 일본 교회 방문, 사역자를 축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아웃리치 준비 기간 동안 팀원 모두가 하루 한 끼씩 돌아가며 급식하며 기도했다. 러브소나타 장소와



브릿지33+공동체 아웃리치팀이 할렐루야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쓰나미 기념관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이와테산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으며, 일본 교회 세 곳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한 성서침례교회는 이와테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었다. 필리핀에 교회를 세울 만큼 믿음이 탄탄한 곳이었다. 목사님 내외분과 부목사님,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찬양이 시작되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일본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다. 일본 복음화율이 1%인데,

이와테현은 그에도 못 미치는 0.4%라고 했다. 목사님은 돌발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고 하셨다. 이분들이 외로움과 사막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 걸까 싶어 눈물이 났다.

미나미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코리안 나이트’로 준비했다. 분주한 과정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일본 성도님들을 맞이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함께 먹고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교회에는 의사였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섬겨온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계셨다. 목사님은 우리 팀 25명이 예배당에 앉은 모습을 보고 울컥해하셨는데, 간절함이 느껴져 눈물이 났다. 이 교회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약 60명의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나라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교회는 그랬다. 보이지 않는 열매를 향한 수고와 끝없이 보이는 기다림,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헌신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있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일본을 생각하면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떠오를 것 같다. 러브소나타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성령님이 영적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켜 일본에 부흥이 임하기를, 이와테현에 우리가 돌린 전단지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한다.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쓰나미의 슬픔을 대신하기를,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민경 자매
(브릿지33+공동체)

나를 아버지 고향으로 보내신 이유

프리덤스쿨
베트남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

코로나19 시기, 나는 고립감과 우울,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다가 프리덤스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으며 오랫동안 눌러 있던 마음이 풀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스테프로 섬기다가 베트남 아웃리치 소식을 들었다. 베트남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우리의 사역은 그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현지 학생 25명의 명단을 선교사님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들에게 전달할 ‘오리지널 디자인카드’도 정성껏 준비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을 품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이들이 누구일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설렜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쏟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대, 20대 초반 현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프리덤스쿨 아웃리치팀이 베트남 현지 학생들과 교제하고 있다.

만났을 때 과연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용서했는데도 여전히 힘이 들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며 강의에 집중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목마름을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나라와 언어를 넘어 내가 프리덤스쿨에서 느꼈던 갈망과 다르지 않았다. ‘정말 잘 왔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오리지널 디자인카드를 하나씩 전달했을 때, 학생들이 “맞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고백했다. 놀라움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부르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학생들의 열린 나뭇잎에 공감하며 격려하고 축복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느꼈다.

사전에 기도하는 중에 “외로움과 고단함이 끝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특별한 마음을 받은 형제가 있었다. 그를 만나봤더니 그날 처음 교회에 온 형제였다. 부모님의 결별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 강의와 나눔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그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청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치 오래 지켜봐 온 사이처럼 마음이 쓰였다.

내가 먼저 누렸던 회복이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 코로나19 시기 고립되어 있던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상처 입은 청년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고 계셨다. 나 역시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온 누리로, 그리고 나의 남은 삶으로도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김정미 성도
(프리덤스쿨)

대전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
일본 오사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내게 이번 일본 오사카 아웃리치는 단순한 선교 일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두 달 동안 아웃리치 준비 모임을 가졌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누리고, <시편>과 <잠언>, 신약통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 아웃리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다. 무엇보다 아웃리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현장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다.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사카 데이케어센터에서 재일교포 1세대 어머니들을 만났다. 어머니들의 손과 어깨를 정성껏 마사지해 드리고, 준비한 공연으로 기쁨을 나누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손



대전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재일교포 1세대 어머니들의 손과 어깨를 마사지해 드리고 있다.

길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들의 얼굴을 보며 도리어 내가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일본이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역사와 기독교 박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예도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수많은 성도가 순교했다. 성도

들을 찾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그림이나 십자가를 밟게 하는 ‘후미에’도 시행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깊이 실감을 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팀원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큰 은혜였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지칠 만도 했는데,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얼굴을 찡푸리지 않았다.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부족함을 채워

주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다. 서로를 섬기고 세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생각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아웃리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것임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첫째, 선교는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둘째, 복음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을 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고 싶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현정 집사
(대전온누리교회)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7주년

임직원과 후원자 등 120여 명 참석

온누리복지재단이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지난 8월 21일(금) 오전 11시 서초구립 느티나무센터 아트홀에서 열렸다.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과 후원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는 백흥기 감사 대표기도, 연간 사업 보고, 송영범 대표이사 승진사 임명, 장기근속자 표창, 감사패 수여, 기념사, 이재훈 위임목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실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송영범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온누리복지재단은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품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가 될 것”이라며 “창립 27주년 기념행사가 처음 품었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새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1999년 창립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참가자 모집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에서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을 배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청춘클래스 15기 참가자 모집

크리스천 청년들의 건강한 만남, 연애, 결혼을 돕는 ‘청춘클래스’ 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2일(토)과 19일(토) 오후 3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청춘클래스 15기에서는 12일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특강, 19일 한강 크루즈 선상데이트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3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남녀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7만 원(양일 식석 포함).



문의: cheongchunclass@gmail.com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8월 16일 자 1601호)故 이태오 형제 치료비 마련을 위한 후원계좌번호가 하나은행 573-810031-74605(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문의: 010-4713-6949(최명학 선교사)

몰도바에 복음과 사랑을!

NGO 더멋진세상, SNS청년부 연합 아웃리치

NGO 더멋진세상과 SNS청년부가 지난 7월 6일(월)부터 14일(화)까지 몰도바 스테우체니와 키시너우 인근에서 연합 아웃리치를 했다.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과 SNS청년부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한호진 선교사(NGO 더멋진세상 협력파트너, 몰도바 34년 사역)와 새언약교회(현지 교회)도 함께했다.

이번 연합 아웃리치에서는 여름성경학교, 부모초청 전도예배, 대학생과 청년 대상 한국문화체험, 한국어반 예배 등을 했다. 여름성경학교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약 250명, 부모초청 전도예배에

는 약 100명, 대학생과 청년 프로그램에는 약 120명이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8년부터 몰도바에서 현지 선교사 및 교회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대학청년부와 협력해 ‘총체적 선교’를 이어오고 있다.

이예슬 자매(SNS청년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시스템으로 선교지를 든든히 이어주는 손길들을 보면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 그려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관계기술훈련 입문반 참가자 모집

10월 17일부터 매주 토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2026 하반기 관계기술훈련 입문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관계기술훈련은 슬픔, 두려움, 분노, 절망, 수치, 역겨움 등 6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아가며 기쁨과 회복, 나눔의 존재로 세워지도록 돕는다.

신학과 영성에 대인관계신경생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실습 중심의 과정이 진행된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감정 조절이 힘들어 신앙생활에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포함). 문의: 02-315-3532



How Mission 17기 참가자 모집

How Mission(총체적 선교스쿨) 1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28일(금)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

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선교사 무료).

How Mission에서는 총체적 선교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배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인적 건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285-4382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 25일(화)	성동광진	두란노홀	18:00
8월 25일(화)	마포	비전홀	18:00
8월 26일(수)	용산	두란노홀	18:00
8월 27일(목)	이수	두란노홀	18:00
8월 27일(목)	강촌	한동홀	18:00
8월 27일(목)	동작	비전홀	18:00
8월 28일(금)	중종로	두란노홀	18:00
8월 28일(금)	신용산	시온홀	18:00
8월 29일(토)	고양은평	광림수도원	15:00
8월 29일(토)	강서	비전홀	10:30
9월 1일(화)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9월 1일(화)	서대문	한동홀	18:00
9월 1일(화)	여의도	정곡빌딩	20:00
9월 2일(수)	이촌	두란노홀	18:00
9월 3일(목)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9월 3일(목)	노원	한동홀	18:00
9월 4일(금)	관악금천	두란노홀	18:00
9월 4일(금)	S브릿지	한동홀	18:00
9월 4일(금)	양천	비전홀	18:00
9월 4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8:00
9월 5일(토)	일산파주	비전센터	18:00
9월 5일(토)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9월 5일(토)	김포	비전홀	16:00
9월 6일(일)	특초	순형홀	17:00
9월 7일(월)	서빙고	한동홀	18:00
9월 8일(화)	성북	한동홀	18:00
9월 8일(화)	가정사역	시온홀	18:00
9월 10일(목)	OCC	두란노홀	18:00
9월 11일(금)	천양사역	성가대실	18:30
9월 12일(토)	한강	남한산성	10:00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 27일(목)	서초B	화평홀	19:20
8월 28일(금)	경기A	화평홀	19:50
8월 28일(금)	서초A	온유홀	19:00
8월 28일(금)	강남B	드림홀	18:30
8월 29일(토)	온민을	화평홀	17:00
8월 29일(토)	분당B	드림홀	18:00
9월 1일(화)	강남A	드림홀	20:00
9월 3일(목)	송파A	화평홀	18:30
9월 3일(목)	서초C	드림홀	19:00
9월 3일(목)	강남E	도곡 기쁨홀	17:00
9월 4일(금)	분당A	화평홀	19:00
9월 4일(금)	양재B	온유홀	19:00
9월 4일(금)	도곡	드림홀	20:00
9월 4일(금)	강남C	도곡 기쁨홀	19:00
9월 4일(금)	Point5	도곡 온유홀	19:30
9월 5일(토)	송파B	화평홀	17:00
9월 5일(토)	과천의왕	드림홀	17:00
9월 6일(일)	온사랑	도곡 기쁨홀	13:00
9월 8일(화)	양재A	드림홀	19:30
9월 11일(금)	온소망	온유홀	20:00

캠퍼스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9월 4일(금)	부천 사랑	비전홀	20:00
9월 4일(금)	부천 화평	분당	20:00
9월 5일(토)	부천 믿음	분당	13:00
9월 5일(토)	부천 소망	분당	17:00
9월 12일(토)	부천 화락	사모님홀	13:00
9월 1일(화)	수원 북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20:00
9월 3일(목)	수원 동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20:00
9월 4일(금)	수원 서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20:00
9월 5일(토)	수원 남누리	오름비전빌리지	14:00
9월 4일(금)	대전 동누리	분당	19:30
9월 4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예배당	19:30
9월 11일(금)	대전 서누리	분당	19:30
9월 11일(금)	대전 남누리	비전홀	19:30
9월 2일(수)	남양주 연합	분당	19:30
9월 6일(일)	평택 연합	분당	14:00
8월 28일(금)	인천 충성	분당	20:00
8월 28일(금)	인천 화락	소망홀	19:30
8월 29일(토)	인천 온유	분당	11:30
9월 11일(금)	인천 사랑	소망홀	20:00
9월 11일(금)	인천 화평	분당	20:00
9월 4일(금)	강동 동서울A	사랑홀	20:00
9월 4일(금)	강동 동서울B	분당	20:00
9월 11일(금)	강동 동서울C	분당	20:00
9월 5일(토)	용인 연합	김사무엘홀	16:00
9월 4일(금)	영종 동누리	백향목홀	19:30
9월 5일(토)	영종 서누리	1층 로비	18:30
9월 1일(화)	제주 연합	세상의 빛	18:00
9월 4일(금)	서산 연합	분당	19:00

창작 음악극 ‘YESHUA 33 YEARS’

8월 29일부터 서울 중구 공감센터

예수의 삶과 말씀을 재해석한 창작 음악극 ‘YESHUA 33 YEARS’가 오는 8월 29일(토)부터 서울 중구 공감센터에서 막 오른다. ‘YESHUA 33 YEARS’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을 현대인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창작 음악극이다. 공연은 8월 29~30일, 9월 5~6일, 9월 12~13일 오후 6시에 시작한다. 입장료는 4만 4천 원. 티켓은 하단 QR코드로 구매하면 된다. 음원 저작권 및 공연 티켓 판매 수익금은 사회선교본부 도시락 지원 사업(쫄바촌 독거노인, 포천 하랑센터 등)에 사용된다. 문의: 010-6364-9492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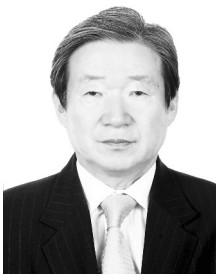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나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얼굴로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지리산 천왕봉 오르는 길에 있는 고사목 지대는 생을 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을 지니고 있다. 거센 바람과 맞선 천 년 인고의 시간 끝에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며 무너진 끝자락은 비로소 완성된 한 편의 서사시 같다. 죽음은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존재하리라는 것을 말해주듯, 시공간을 초월한 자처럼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못해 처연해 눈물이 났다. 그 고사목 지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마을 뒷산을 오르며 열심히 몸을 만들었다.

“갓다 오시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진료 의사의 경고에 그만 파란 꿈을 접고 말았다. 지리산을 한 번 더 오르겠노라는 마음을 몸이 따라주지 못했다.

지리산! 시간은 발끝에서 천천히 느려지고, 숲은 고요 속에서 말을 아끼며, 바람은 아스라한 기억들을 흔든다. 산은 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나를 찾아 나를 넘는 것이라고 말없이 가르친다. 바람과 별과 고요 속에서 짐처럼 배낭 가득 메고 왔던 상념들을 산등성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만난 나와 함께 내려가게 하는 한편의 시 그 자체다.

지리산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30여 년 전 10월 마지막 날, 산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하천 대피소에서 묵던 때였다. 낮까지 좋았던 날씨가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영하로 곤두박질치더니, 진눈깨비가 사납게 휘몰아쳤다. 대피소 주변의 텐트촌에는

점점 적막이 감돌더니 한두 팀씩 추위를 피해 대피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 작은 대피소에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고, 시멘트 바닥 통로에 기대앉아 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밖으로 나갈 생각은 언감생심이었는데, 한밤중에 문제가 생겼다.

“화장실 가야 하는데...”

통로에 자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갔다. 밖으로 미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이 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온몸으로 힘껏 밀었다. 문을 막고 있던 무거운 물체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문 앞 돌계단 몇 개 아래에 몸을 구부린 채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이 눈보라 속에 사람이라니. 순간 ‘얼어 죽었구나!’ 라는 무서운 생각에 덜컥 겁이 나서 마구 흔들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희미한 눈빛 사이로 검정 등산복 후드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눈을 뜬 것이다. 자매였다, 그것도 혼자 야간산행을 온.

밤늦게 도착한 자매는 대피소 안이 꽉 막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문 앞에서 눈보라를 피하다가 그만 잠이 든 것 같았다. 일으키려는데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자매의 다리를 구부려 펴고 간신히 일으켜 세워 내 자리에 재웠다. 덕분에 나는 통로 한쪽에 비집고 들어가 담요한 장으로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밤을 보냈다. 다음날 자매는 새벽 일찍 출발하는 사람들 틈에 같이 떠난 듯했다. 한밤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마음 놓고 떠난 것 같았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 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용히 나를 만지실 때가 있다. ‘우연이겠지’ 라고 여기면 그것은 우연으로 끝난다. 그러나 때로는 한밤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얼굴로 다가오시기도 한다.

권사칼럼

은혜의 자리, 생명 사랑의 자리



이수연 권사
(마포공동체,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창문을 열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절정이던 4월, 남편의 외래진료 일정이 잡혀있던 날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두경부암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여러 부작용에도 묵묵히 감당해 오던 치료를 갑자기 거부하는 남편의 태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적항암제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있었기에 그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힘을 내 보자고 권했지만, 완강한 그의 태도 앞에서 결국 혼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주치의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조심스러운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갑당이 어려우시면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습니다. 완화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차갑게 들렸다. 이전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모습과 달라서 오랫동안 마음이 시렸다. 그렇게 찾게 된 호스피스 완화치료학과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여기에 온다고 해서 꼭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끝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회복을 도울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는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꺼져 가는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소망을 다시 밝혀 주었다.

병동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 가족을 돌보듯 따뜻했다. 눈빛과 말투,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사랑이 가득했다. 그 돌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였다. 매일 찾아와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수녀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묵묵과 발마사지 시간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경험했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회 로비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온누리호스피스팀을 보면서 그 감사가 떠올랐지만, 선뜻 신청하지 못하다가 이번 봄학기에 참여했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잊고 있던 그 시간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남편의 병상, 분주한 간호사들, 그리고 곁을 지키던 가족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마음을 치며 때로는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런데도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온누리요양센터 방문이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해주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웃음으로 반겨주는 어르신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왕관을 쓰고 울동하며 잠시라도 기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봄 햇살이 참 좋은 날이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책도 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빈 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이모 같은 친근함이 밀려왔다.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흐뭇해하시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받았던 그 귀한 사랑 속에서 나는 온누리교회 호스피스 사역을 떠올리며 언젠가 이 사랑을 꼭 흘려보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다.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다.

온누리호스피스학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은혜의 자리, 생명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덕분이다. 모든 삶의 순간에 나와 함께해주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성은일 목사
(춘천새순교회)

여러 공동체의 아웃리치 일정과 교회의 여름 사역으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올해 여름휴가가 특별했던 이유는故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 주간 새벽기도회 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다.

원래 예정했던 일정에 맞춰 여름휴가를 계획해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일정들을 조정하거나 취소해야 했다. 무엇보다故 하용조 목사님을 추모하는 새벽기도회 현장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 여름휴가를 떠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몹시 아쉬웠다.

7월 27일,故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 주간이

시작되는 날, 나의 여름 휴가도 함께 시작되었다. 비록 새벽기도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故 하용조 목사님의 생전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는 시간은 갖지 못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회 시간에 맞춰 일어났다. 나름 단정하게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고 성경책을 챙겨 거실 소파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워 앉아예배를 드렸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故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故 하용조 목사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은 전도사 시절 대부분 시청했었다. 그 외의 생전 영상들을 찾아보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보지 못한故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故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여름휴가가 특별했던 이유

전, 그 시대에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련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 진정한 ‘강해설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설교자는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설교였기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故 하용조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른바 ‘온누리 목회자 설교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故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종일 마음이 요동쳤다.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며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생각지 않게 앞당겨진 여름휴가와 그로 인해 여러 계획을 조정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예정된 일정대로 여름휴가를 떠났다면故 하용조 목사님 추모예배 현장에 참석한 뒤 다시 출근해서 정해진 사역을 감당하느라 바쁘게 하

루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故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루 종일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Acts29 비전과 ‘예수바보 행전’의 비전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안에 감사의 회복이 있었다.

사역하다 보면 나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마주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낙심하기도 했지만, 다시 지금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다.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옮기실 때까지故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지키는 그분의 제자가 되리라 다짐한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 강부록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 김승훈 목사 (031) 896-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 변대식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 김태웅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경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대안온누리
-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대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마을온누리
-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965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sa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오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illegible]

광고	복지재단	재정	소천
2027년 상반기(1~6월) 은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 일시: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은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 자격: 예비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총 6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은누리교회에 등록된 성도(예비신랑, 신부는 타 교회 상관없이 등록교인이여야 함) 참석: 당일 예비 신랑, 신부만 추첨 가능 준비: 예약금 200만 원(현금) 방법: 당일 예비신랑, 신부 오후 7시까지 참석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 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 선정 예약 문의: 02-570-7505	은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은누리복지재단 문: 황찬범 팀장(02-3215-3413) 은누리오양센터 이미웅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웅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작업: 이미웅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안구 양지면 (양지은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기업 계약종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차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료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은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관리인 안내 실입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사례별이치로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교육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8/15(토) 양재A 공회 성도 모친상 고 이상순 8/15(토) 강남B 김옥화 성도 부친상 고 김평기 8/15(토) 은소망 배소영 성도 모친상, 이대현 성도 빙모상, 강남B 배지는 성도 모친상 고 정예택 8/15(토) 강남E 신현선 성도 부친상, 조극수 성도 빙부상 고 신용무 8/15(토) 동작 조애숙 권사 모친상, 금세운 집사 빙모상 고 변순자 권사 8/16(일) 동대문중앙 강선혜 집사 모친상 고 김영희 성도 8/17(월) 강남E 홍승표 성도 부친상, 강주현 성도 시부상 고 홍성도 8/18(화) 노원 허영희 권사 남편상 고 전영수 집사 8/18(화) 서대문 홍승표 성도 부친상, 임은수 성도 시부상 고 홍순원 집사 8/19(수) 이수 허태호 성도 빙부상 고 권병환 성도 8/19(수) 관악금천 윤성용 성도 모친상 고 이만이 성도 8/20(목) 김포 고 정보민 장로 8/21(금) 누리사랑부 최충현 성도 모친상 고 김상례
은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홍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은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